

##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능력 비교

최 은 정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윤 은 미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이 소 희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이 은 경\*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

###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의 읽기과제 수행 시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능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환경 아동을 위한 연음규칙 인식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언어발달 수준이 7세 이상 9세 미만으로 필리핀인 어머니를 둔 이중언어환경 아동 10명과 단일언어환경 아동 10명이었다.

연음규칙 인식능력 수준 검사는 연음규칙이 적용된 독립단어 40개와 문장내 단어 40개를 제시하고, 이를 읽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단어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동일집단에 있는 이중언어환경 아동이라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한국어 교육 및 사용능력 정도, 한국 거주기간 및 부모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언어발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동의 환경적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의 대상자의 표집수를 확대하여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릴 것을 제언한다.

단일언어환경 아동에 비해 연음규칙 인식능력이 낮은 이중언어환경 아동을 고려하여 언어 중재 시 연음규칙의 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연음, 연음규칙, 연음인식, 이중언어, 이중언어 환경

---

\* 교신저자(eklee129@hanmail.net)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지난 수천 년간 타민족의 혈통이 거의 섞이지 않은 민족으로서 단일의 문화를 지켜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인구의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미혼총각이 늘어나면서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동남아시아인과 한국인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소위 ‘코시안(ko-sian)’으로 불리면서 단일민족의 문화를 지켜오던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소수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 2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 실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여러 사회적인 부적응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 하나가 의사소통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와 관련된 문제이다. 아동들은 대체로 양육자의 언어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유아기에는 어머니의 언어형식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된다. 박상희(2007)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에는 특히 주 양육자의 언어습관, 언어형태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어발달 양상은 다문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들은 같은 지역에 가까이 살면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생활하고,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어보다는 자신들의 모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 사이에서 성장하게 된다.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데는 지적, 인지적 능력 못지않게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근 이중언어환경 아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동의 언어 및 조음음운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상희(2007)는 2세 10개월에서 6세 2개월의 이중언어환경 아동 9명을 대상으로 조음과 음운 패턴을 연구하였는데, 이중언어환경의 아동들은 자음정확도가 단일언어환경 아동에 비해 떨어지고, 발달적, 비발달적 음운 변동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권미지 등(2007a)은 4세~6세의 이중언어환경 아동 23명과 단일언어환경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음운변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종성생략과 이완음화, 모음편차, 첨가, 치조음 생략에서 두 언어 환경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고, 동일한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조음특성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단어 명료도가 이중언어환경 아동이 단일언어환경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4세경에 그 차이가 가장 커졌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고 하였다(권미지 등, 2007b). 박지윤 등(2007)은 학령전기 이중언어환경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의 언어학적 특성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평균 발화 길이가 단일언어환경 아동에 비해 짧았고, 사용하는 형태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하였다. 다

중 언어 사용자들은 모든 면에 걸쳐 그들의 모국어의 영향, 즉 모국어와 이차적 언어 사이에 간섭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간섭 현상에 의해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외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송향근, 2004).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활동 시에 큰 장애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ildersleeve et al., 1998, Goldstein & Washington, 2001, 송향근, 2004). 이들 연구에서 보듯 이중언어환경 아동은 언어발달 못지않게 음운규칙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운규칙의 불완전한 습득은 아동의 학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중 특히 연음규칙은 소리의 음운규칙이라고도 하며,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자음은 모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져 발음되는 것으로 홑받침이 연음될 경우에는 그 음가가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고, 겹받침이 연음될 경우에는 뒤에 있는 자음이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이 된다. 연음규칙은 언어발달 중 기본적인 음운인식의 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기초적인 문장 읽기와 이해에 어려움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이 발달된 후 다양한 음운 규칙들이 습득되고, 자연스러운 읽기가 가능해지면 비로소 읽기의 이해가 시작되는 것이다(이은선, 석동일, 2006). 이는 차후의 언어발달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연음규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선(2006)은 5, 6세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과제를 통한 연음규칙의 발달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5세 아동집단의 연음규칙 발달이 6세 아동집단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동일연령 내에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읽기과제를 통해 학령기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학령기전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이 학령기 아동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동일연령 내에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이은선, 2006). 윤혜경(1997)은 만 5세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은 음운인식의 지식을 적용하여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은 5세 이후에 발달이 시작되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음규칙이 적용된 발음은 그 표기법과 차이가 있어 모음과 자음체계의 이해가 되지 않은 아동은 다소 혼돈이 생길 수 있다. 즉, 연음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습득되지 않은 아동은 읽거나 쓰기에서도 많은 오류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중언어환경의 아동들은 언어학습 능력의 취약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어의 읽기 및 말하기 교육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연합뉴스, 2008). 이중언어환경 아동들의 조음 및 음운인식의 발달은 한국어 단일언어환경 아동에 비해 일부 지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권미지 등, 2007a; 권미지 등, 2007b; 박상희, 2007)이 나와 있지만 연음규칙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이중언어환경 아동을 위한 연음규칙 인식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독립단어 수준에서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아동 간에 연음규칙 인식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아동 간에 연음규칙 인식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대구, 부산,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이중언어환경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 10명과 단일언어환경 아동 10명으로 하였다. 이중언어환경 아동들은 부모형제 이외의 가족구성원이 없으며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필리핀인으로 이중언어환경에 노출된 아동으로 하였다. 두 집단의 아동은 모두 담임교사와 부모에 의해 정서적, 행동적, 청각적, 시각적, 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며 읽기에 문제가 없고, 자음정확도가 90%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은 받침이 없는 문자는 5세, 받침이 있는 문자는 6세에 발달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자까지 읽을 수 있다고 보고한 윤혜경(1997)의 연구와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연음규칙 인식능력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 이은선, 석동일(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읽기와 연음규칙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 언어발달 연령 7세 이상 9세 미만인 아동으로 하였다. 이들의 언어연령은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1994)를 실시하여 정상범주(±1SD) 안에 포함되는 아동으로 하였다. 집단별 구체적인 연구 대상의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중언어환경 집단의 평균 연령은 91.3개월, 단일언어환경 집단은 82.5개월이었고, 이중언어환경 집단의 평균 언어점수는 46.6점(SD=4.142), 단일언어환경 집단의 평균 언어점수는 47.3점(SD=3.401)으로 두 집단 간 언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언어능력에 대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 = -.413, p > .05$ ).

<표1> 연구 대상의 집단별 특성

이중언어환경 아동						단일언어환경 아동			
연구 대상	연령	성별	어머니		언어 점수 <sup>1)</sup>	연구 대상	연령	성별	언어 점수 <sup>1)</sup>
			국적	거주기간					
B1	8:00	여	필리핀	10년	51	M1	7:01	여	51
B2	7:00	여	필리핀	8년	39	M2	6:06	여	42
B3	7:06	여	필리핀	9년	43	M3	6:04	여	45
B4	7:02	여	필리핀	9년	44	M4	6:10	여	43
B5	8:02	여	필리핀	10년	51	M5	7:02	여	52
B6	8:11	여	필리핀	10년	52	M6	7:03	여	51
B7	8:00	남	필리핀	9년	47	M7	6:04	남	48
B8	7:08	남	필리핀	9년	48	M8	6:09	남	48
B9	6:08	남	필리핀	9년	47	M9	7:07	남	47
B10	7:00	여	필리핀	8년	44	M10	6:11	여	46

<sup>1)</sup>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등, 1994)

## 2. 연구 대상 선정 및 검사도구

### 1) 언어능력 검사도구

언어능력 검사는 이중언어환경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의 조음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그림자음검사(Picture Consonant Articulation Test: PCAT; 김영태, 1994)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포괄적인 언어능력 검사를 위하여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1994)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이해와 의미-문법-화용-음운 능력을 검사하였다.

### 2) 연음규칙 인식 검사도구

이중언어 및 단일언어환경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수준 검사는 독립단어 수준과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검사 목록은 전체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단어와 문장내 단어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문항은 40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단어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인 ‘말하기, 듣기, 읽기’(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8)와 ‘나도 쓸 수 있어요’(대구광역시교육청, 2008)와 이은선 등(2005)이 제안한 단어와 문장에서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이들 단어는 종성자음이 중화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것들로 구성하였다. 독립단어의 목표음소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으로 하였으며, 목표음소는 종성에 포함되고 뒤음절의 초성은 /ㅇ/이 위치하도록 구성하였다(부록 I). 문장내 단어에서 목표음소는 /ㄱ/, /ㄱ/, /ㄴ

/,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ㅋ/, /ㆁ/으로 하였으며, 목표음소는 종성에 포함되고 뒤음절의 초성은 /ㅇ/이 위치하도록 구성하였다(부록 II). /ㅅ/은 표준발음법을 기준으로 뒤음절에 /ㅇ/이 오는 경우 /ㅅ/으로 발음될 수 있으므로 목표음소에 포함시켰고, /ㅇ/은 뒤음절에 /ㅇ/이 오는 경우 음가를 가지지 못하므로 목표음소에서 제외시켰다. 음절수는 이음절, 삼음절, 사음절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절차

모든 검사를 이중언어환경 집단과 단일언어환경 집단에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실시하였다.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대구, 부산, 경북에 위치한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검사는 조용한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아동이 마주앉은 상태에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연구 대상이 읽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시 제시하는 읽기 자료는 독립단어의 경우는 글자크기 20폰트, 글자체 신명조로 하였고, 용지의 크기는 A4 한 장에 검사항목 번호순으로 작성하였다. 문장내 단어는 글자크기 15폰트, 글자체 신명조로 하였고, 용지의 크기는 A4 한 장에 20문장 씩 전체 두 장으로 검사항목 번호순으로 작성하였다.

연음규칙 인식능력 검사는 아동과 검사자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간단한 놀이나 대화를 통해 아동과 라포형성을 이룬 후에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아동이 자연스럽게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를 읽을 때 읽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검사자는 검사단어 및 검사문장의 번호를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주었고, 이를 연구 대상이 읽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의 발화를 녹음기에 녹음하여 녹취하였다.

###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제작한 도구(부록 I, II)를 이용하여 국립국어 연구원의 ‘발음 표준어 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술아/를 [소다] 또는 [소사] 등과 같이 종성자음이 그대로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은 비표준 발음으로 간주하여 모두 오반응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꽃을/을 [꼬틀], /빛이/를 [비시] 등과 같이 읽은 것을 모두 오반응으로 처리하였다.

총 80개 문항의 독립단어 및 문장내 단어를 검사 목록표에 각 단어마다 정반응 1점, 오반응 0점으로 처리하여 전체 정반응의 수로 계산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과제당 총 점수는 40점 이었다.

## 5. 자료 처리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 간 연음규칙 인식수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단어와 문장내 단어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결과를 독립단어와 문장내 단어 수준으로 분류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6. 신뢰도

연구 대상의 발화 분석은 언어치료 전공자 3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치도가 80%가 될 때 까지 연습한 다음 각자 다른 곳에서 실시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96%로 나타났다.

$$\text{평가자간 신뢰도(\%)} = \frac{\text{평가자간 일치된 항목수}}{\text{전체 항목수}} \times 100$$

## III.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수준을 비교하여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언어능력이 7세 이상 9세 미만인 아동을 두 집단으로 배치하였고, 독립단어 수준과 문장내 단어 수준으로 나누어 집단 간 연음규칙 인식능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1. 독립단어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의 독립단어 수준에서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두 집단 간 독립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은 평균 30.10점(SD=5.109),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은 평균 35.30점(SD=2.003)으로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5.20점이었다. 두 집단 간 독립단어 수준에서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언어환경 아동을 위한 독립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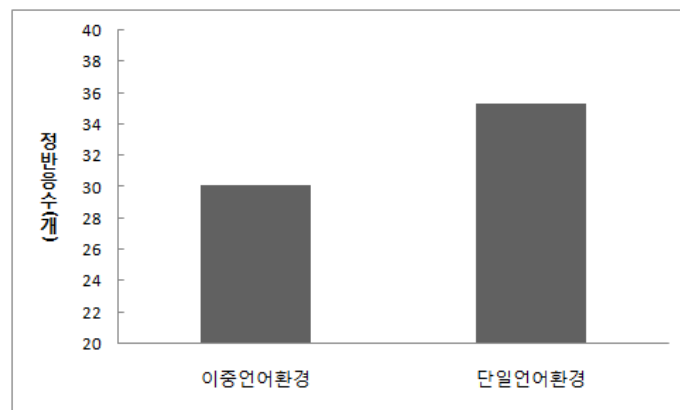
<표 2> 언어환경 간 독립단어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에 대한 t-검정 결과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이중언어환경	10	30.10	5.109	-2.997*
단일언어환경	10	35.30	2.003	

\* $p < .05$

이중언어환경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낸 단어는 ‘날알’로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은 연구 대상 모두가 오반응을 나타내었고,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은 5명이 오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ㄷ/ 음소에 대한 연음규칙 인식이 어렵다고 한 이은선(2006)의 연구와 그 결과가 유사하였다.

또한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은 ‘단오’, ‘산엽’, ‘목욕’에서 5명이 정확한 연음규칙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목욕’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연음규칙이 습득되어 있지 않았다.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은 ‘연안’에서 4명이 오반응을 나타내었고, ‘수줍음’, ‘삼일절’, ‘관용’에서 3명이 오류를 나타내었다. 집단 간 독립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언어환경 간 독립단어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



## 2. 문장내 단어에서의 연음규칙 인식능력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간의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언어환경 간 문장내 단어에서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에 대한 t-검정 결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이중언어환경	10	32.80	5.514	-2.981*
단일언어환경	10	38.10	1.1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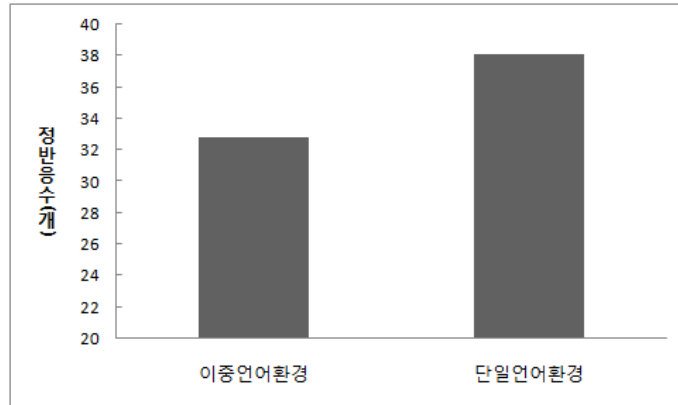
<표 3>에서와 같이 두 집단 간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은 평균 32.80점(SD=5.514),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은 평균 38.10점(SD=1.101)으로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5.30점이었다. 각 집단의 평균점수는 독립단어 수준에서와 유사하게 이중언어환경의 아동집단이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언어환경 아동을 위한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낸 문장은 ‘나는 빛이 나지 않아’에서 ‘빛이[비치]’와 ‘밥솥에 떡이 있어요’에서 ‘솥에[소테]’로 8명의 아동이 오반응을 나타내었고, ‘교실 안이 깜깜해요’, ‘오늘은 달이 밝아요’, ‘병아리 그림을 그립니다’, ‘추운 집에 들어갔어요’에서 각각 6명이 오류를 보였다.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에서 가장 많이 오류를 나타낸 문장은 ‘밥솥에 떡이 있어요’에서 ‘솥에[소테]’로 7명의 아동이 오반응을 나타내었고, ‘나도 꽃을 관찰했어요.’에서 6명의 아동이 오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중언어환경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낸 문장내 단어는 ‘밥솥에 떡이 있어요.’의 ‘솥에[소테]’로 많은 아동들이 [소테]를 [소체] 또는 [소세]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꽃을/과 /빛이/에서도 [꼬틀], [비티] 등의 오류를 나타내었다. 이는 국립국어연구원의 ‘발음 표준어 원칙’에서 언급한 ‘같은 환경에서 방언 또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자음으로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 /ㄷ, ㅈ/를 종성으로 한 낱말들이다. 이와 같은 국립국어연구원의 ‘발음 표준어 원칙’을 기준으로한 오반응율은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은 전체 오반응 중 69.2%,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은 전체 오반응 중

40.4%이었다. 이런 오류들은 표준 발음에서는 벗어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의사소통 시에는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장내 단어 읽기 수행 과제에서의 정반응률은 양 집단 모두에서 높아질 수 있다. 집단 간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언어환경 간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 인식능력

연구 대상들이 단서가 제공되지 않은 독립단어 수준보다 3~4어절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단어가 포함되는 문장내 단어수준에서 더 자연스럽게 연음규칙을 적용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0명의 필리핀인 어머니를 둔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10명의 단일언어환경 아동을 대상으로 연음이 되는 독립단어 40개와 문장내 단어 40개에 대한 연음규칙 인식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을 비교한 결과, 독립단어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경우 연음규칙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연음규칙에 대한 수준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의 연음규칙 인식능력을 비교한 결과, 문장내 단어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아동이 평

상시 많이 사용하는 고빈도 단어에 대한 치료를 먼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동일집단에 있는 이중언어환경 아동이라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한국어 교육 및 사용능력 정도, 한국 거주기간 및 부모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언어발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동의 환경적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중언어환경 아동집단과 단일언어환경 아동집단의 대상자의 표집수를 확대하여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한다.

연음규칙 인식은 7세 이상 9세 미만이 되면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중언어환경의 아동은 읽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연음규칙 인식능력이 단일언어환경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남으로써 차후의 읽기 발달에 있어서도 많은 지체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적절한 읽기 발달은 학업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특히 학교생활에서는 쓰기 교육과 학업 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은선, 석동일, 2005). 이미 여러 사회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중언어환경 아동이 좀 더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정확한 연음규칙 인식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http://www.korean.go.kr>.
- 권미지, 박상희, 석동일 (2007a).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음운변동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2), 299-318.
- 권미지, 박상희, 석동일 (2007b). 학령전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조음특성, **음성과학**, 14(2), 73-87.
- 김영태 (1994). **그림자음검사(PCAT)**, 구어-언어 진단검사, 서울: 언어치료학회
- 대구광역시교육청 (2008). **나도 쓸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청
- 박상희 (2007).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조음과 음운패턴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143-152.
- 박지윤, 박상희, 석동일 (2007). 학령전기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학적 특성, **언어치료연구**, 16(2), 131-145
-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1994).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 복지관
- 송향근 (2004). 핀란드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25, 113-127.
- 연합뉴스 (2008). 광주주민센터에 열린 '코시안 한글교실', 2008. 01. 09 보도.
- 윤혜경 (1997). 아동의 한글읽기발달에 관한 연구. 자소-음소 대응 규칙의 터득을 중심으로. 박사 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은선 (1993). 음운현상 기술에 있어서의 음절-아동언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은선 (2006). 읽기 과제를 통한 5,6세 아동의 연음규칙 발달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1), 351-367.
- 이은선, 유선미, 석동일 (2005).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기를 통한 연음규칙 인식 수준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105-115.

- 이은선, 석동일 (2005).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수준 비교, **음성과학**, 12(2), 109-120
- 이은선, 석동일 (2006). 읽기과제를 통한 학령기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5(1), 87-101.
-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8), **국어 읽기 1-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8), **국어 말하기·듣기 1-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Gildersleeve-Neumann, C. & Davis, B. (1998). Learning English in a bilingual preschool environment : Change over time,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American Speech Language Hearing Association*, San Antonio, Texas.
- Goldstein, B., & Washington, P. (2001). An initial investigation of phonological patterns in 4-year-old typically developing Spanish-English bilingual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0, 153-164.
- Vennemann, T. (1988). *Preference Laws for Syllable Structure and the Explanation of Sound Change-With Special Reference to German, Germanic, Italian, and Latin*. Berlin-New York-Amsterdam : Mouton de Gruyter.

## Comparing the Understanding of Prolonged Sound Rule between Bilingual Language Children and Monolingual Language Children in the Reading Tasks

**Eun Jung Choi**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Eun Mi Yun**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So Hee Lee**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Eun Kyoung Lee**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understanding of prolonged sound rule between bilingual language environment children and monolingual language environment children in the reading tasks and to make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ement of bilingual language environment children in understanding of prolonged sound rule. The subjects were 10 bilingual language environment children from 7 to 9 years old who have philippine mother and 10 monolingual language environment children from 7 to 9 years old who have korean mother. The experiment of understanding of prolonged sound rule was performed by presenting 40 independent words and 40 words in a sentence prolonged sound available to children and making them read these words.

The following were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First, in the independent words the score of bilingual language environment children group was lower significantly compared to score of monolingual language environment children group. Second, in the words within a sentence the score of bilingual language environment children group was also lower significantly compared to score of monolingual language environment children group.

Considering the low understanding of prolonged sound rule of bilingual language

14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제9권 3호)

environment children, a intervention program which could enable them to learn principles of prolonged sound rule must be invented.

**key words** : prolonged sound, prolonged sound rule, bilingual language environment.

---

논문 접수: 2008. 8. 5    심사 시작: 2008. 8. 11    게재 확정: 2008. 9. 26

<부록 1> 독립단어 수준의 읽기 자료

연음 음소	번호	단 어	점수	연음 음소	번호	단 어	점수
ㄱ	1	목욕		ㄴ	21	믿음	
	2	속옷			22	놀이터	
	3	국어			23	물음표	
	4	학원			24	밭음	
	5	속삭임			25	울음	
	6	악어			26	할아버지	
	7	직업			27	목걸이	
	8	먹이			28	줄음	
	9	짜짜이			29	옷걸이	
ㄴ	10	관용			30	발걸음	
	11	긴옷			31	살림살이	
	12	손오공		ㄷ	32	참외	
	13	근육			33	검은색	
	14	인어공주			34	음악	
	15	군인			35	삼일절	
	16	연안		ㅂ	36	손잡이	
	17	단오			37	집안	
	18	문안			38	수줍음	
19	산업		39		십이(12)		
ㄷ	20	날알		ㅅ	40	웃음	
				총점		/ 40	

<부록 2> 문장내 단어 수준의 읽기 자료

연음소	번호	문 장	점수	연음소	번호	문 장	점수
ㄱ	1	숲 속은 언제나		ㅂ	21	정은이도 이 옷을 입었어요.	
	2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22	결국 운동장이 좁아졌어요.	
	3	잔치 음식이 많아서		ㅅ	23	좋은 버릇이 생겼습니다.	
	4	비를 막아 주었습니다.			24	함께 웃으면 좋겠어요.	
ㄱ	5	유리 창을 닦아요.			25	학교 앞 연못에 사는	
	6	과일과 우유를 섞어요.		ㅅ	26	같이 갔으면 좋을텐데.	
	7	나뭇가지를 꺾으면 안 돼요.			27	영희를 봤을 텐데.	
ㄴ	8	어서 우산을 쓰세요.			28	저에게도 그 책이 있어요.	
	9	교실 안이 깜깜해요.		ㅈ	29	내일은 낮에 갈꺼예요.	
	10	좋아하는 반찬이 많아요.			30	오늘도 늦어서 죄송해요.	
ㄷ	11	저도 편지를 받았어요.			31	종이를 찢어서 버려요.	
	12	갑자기 물이 쏟아지네요.		ㅈ	32	나는 빛이 나지 않아	
ㄹ	13	책상 아래로 떨어진 연필			33	벌들을 쫓아가며	
	14	반드시 물을 많이 마셔요.			34	나도 꽃을 관찰했어요.	
	15	오늘은 달이 밝아요.		ㅊ	35	밥술에 떡이 있어요.	
ㅁ	16	병아리 그림을 그립니다.			36	어머니는 밭을 매러 가시고	
	17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니?			37	마치 큰 우산 같았습니다.	
	18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ㅊ	38	나도 너의 옆에 있어줄게.	
ㅂ	19	추운 집에 들어갔어요.			39	유치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20	똑같은 대답이 들려왔어요.			40	모두들 앞으로 가세요.	
				총점	/ 40		